한국 박지성 - 아르헨 메시

"중원을 지배해야 승리한다"

박지성

17일 B조 2차전서 숙명의 대결

한국과 아르헨티나 축구의 아이콘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숙명의 '중원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끄는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은 지난 7일(한국시각)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의 프리토리아 대학교 '턱스 스포트 그라운드'에서 끝난 자체 청백전에 메시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격시켰다. 월드컵 예선과 평가전에서 투톱으로 나섰던 메시의 포지션 변화가 이뤄진 셈이다.

메시는 이날 훈련에서 치러진 자체 청백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2도움을 기록하는 빼어난 실력을 과시했다. 메시는 자신의 장기인 빠른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로 투톱의 공격력을 뒷받침했다.

더불어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에스투디안테)과 함께 중원을 지키면서 왼쪽 날개인 카를로스 테베스(멘체스터시티)에게 내주는 패스는 아르헨티나 축구의 화려함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마라도나 감독이 메시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우면서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3-1 전술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대표팀의 '캡틴' 박지성과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허정무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공격적인 4-4-2 전술과 수비적인 4-2-3-1 전술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스와 나이지리아 등 반드시 승점을 챙겨야 할 팀은 4-4-2 전술로 나서고, 막강전력의 아르헨티나 경기에서는 최소실점을 위해 박지성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박지성과 메시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나란히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아 팀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박지성은 지난 2008년 4월3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메시를 완벽하게 봉쇄해 팀의 1-0 승리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기분 좋은 추억이 있다.

당시 박지성은 왼쪽 측면으로 선발출전해 오른쪽 날개를 맡았던 메시를 철저히 막아냈다. 이후 메시가 중앙 미드필더로 이동하자 박지성도 포지션을 바꿔 중앙으로 자리를 옮겨 메시의 움직임을 완벽히 차단했다.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박지성은 맨체스터 지역지인 맨체스터이브닝뉴스로부터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9점을 받았고, "상식을 넘어선 스태미나를 선보였다. 단지 열심히 뛰는 것 이상이었다. 전반에는 골을 넣을 뻔했고 루이스 나니가 반드시 성공시켰어야 할 빛나는 크로스를 건네기도 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특히 박지성은 경기 내내 1만1962m를 주파하면서 메시 봉쇄와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 2차전 역시 박지성의 활약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메시

기성용 셀틱 동료에서 '적'으로 사마라스

오늘 한국·그리스 1차전

16강 운명 걸고 창끝 겨눠

"사마라스는 자질이 있는 선수다. 셀틱에서 가깝게 지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냉정하게 말했더라. 나도 적으로 만났으니 경계를 많이 해야겠다"

축구대표팀의 간판 미드필더 기성용(21·셀틱FC)이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 그리스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 요르고스 사마라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기성용과 사마라스는 12일 오후 8시30분 포트엘리자베스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열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본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16강 운명을 걸고 창끝을 겨눠야 한다.

소속팀 셀틱에서 동료였지만 이제는 자국의 명예를 건 대표팀의 일원으로 1승 사냥의 제물로 삼아야 하는 '적'이 된 것이다.

기성용은 김정우(광주 상무)와 함께 한국의 중앙 미드필더진의 주축으로 경기를 조율하는 한편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수비까지 1인 2역을 해야 한다.

생애 첫 월드컵 본선에 서는 그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 벼락치기가 아니라 준비된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제 포지션이 골을 노리는 것보다 공격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수비 책임도 커 공격적인 부분 못지않게 수비도 신경을 쓰겠다"고 다짐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표팀의 키커로 나서는 그는 "강한 책임을 느낀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찬스를 살린다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다. 우리 공격진의 능력으로 필드골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그리스에 대해선 "그리스는 키가 크지만 빠르지 않다. 공격수들이 스피드를 가지고 뒷공간을 활용한다면 득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교육의 명문

김재규 경찰학원의 합격신화는 계속된다!

원장_ 경찰학 박사 김재규

한번 등록으로 합격할 때까지

합격회원제(5년) | 1년 회원제 | 6개월 회원제
이론종합반 | 문제풀이반

최고의 시설

KPA 싱글하우스 | KPA 독서실 | 무료 동영상실 |
무료 자습실 | 편안한 휴게실 | 체력단련실

KPA 광주김재규경찰학원
www.kpa.co.kr | 062)236-3112 | 전남여고 후문 앞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매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적합,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

▶ 매월동 준 공업지역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광송 간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개별공사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 센터, 사옥적합

▶ 마륵동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사령실 뒤편 도로변, 생산녹지 860㎡(260평)
매매가 7억 8천만원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매가 2억4천만원

▶ 광산구 1종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1744㎡(528평) 매도가 1억8천만원
◉ 박호동 645㎡(195평), 6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나주 남평 토지 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접, 잡종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9천만원

건물 매매

▶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매매
◉ 쌍촌동 대지 278.5㎡(84.2평)/건평 662㎡(200평)
1층상가 2층, 3층, 4층, 원룸, 투룸, 매매가 7억8천만원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슴

▶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 쌍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4억 8천만원 매매가 12억 5천만원

공장 창고 건물 매매

◉ 광산구 우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비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 매도가 7억 8천만원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엄청 UP 됩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이럴때는 –
IPALG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이
경제적이고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친환경 방수제품
특허 방수공법 특허 제 0544371호
본사의 외벽방수 전용제품인
반트®와 하우징코디®로 건물을 리모델링하시면,
특허받은 국내유일의 외벽방수공법이 건물수명을 연장
다양한 컬러 마감으로 획기적인 리모델링효과
때가 타지 않는 고광택 코팅으로 새집효과 지속
세라믹 특수단열소재로 냉난방비 절감 (옵션)
반트® 제품 하우징코디® 제품
페인트가 아닙니다
"반트®" 및 "하우징 코디®" 제품은 본사만의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독일 원자재 외벽 전용 특수 제품입니다.

상가건물 시공전
상가건물 시공후
시공 전
친환경 & 완벽방수
단열 & 리모델링효과
학교건물 시공후 (원공편)
30가지의 다양한 컬러마감
간단한 물걸레질만으로도 외벽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지사
홈/페/이/지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062)511-0444, 010.6603.0405
목포지사 (061)284-0485 순천지사 (061)726-0482
여수지사 (061)683-0485 광양지사 (061)795-0485